

실력부터 마인드까지...손흥민이 대표팀에 미치는 영향

소속팀 경기 중 받은 정신적 충격 '극복'

축구대표팀 '자발적 추가 훈련'도 앞장서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토트넘 감독은 지난 7일(이하 한국시간) 츠르베나 즈베즈다(세르비아)와의 2019-2020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B조 조별리그 4차전에서 4-0으로 대승을 거둔 뒤 "오늘 손흥민은 자신이 강한 정신력의 소유자임을 다시 입증했다. 그가 보여준 활약이 자랑스럽다"며 아낌없는 칭찬을 선사했다.

당시 손흥민은 홀로 2골을 터뜨리면서 대승의 견인차 노릇을 톡톡히 했다. 조별리그 2차전까지 1무1패로 부진했던 토트넘은 손흥민의 활약 덕분에 즈베즈다를 제물로 2연승, 반전에 성공했다.

팬들의 거친 응원문화와 함께 원정팀들에게 악명 높은 장소로 꼽히는 세르비아 원정에서 무실점 완승을 거둔 내용이고 그 중심에서 맹활약한 선수에게 찬사를 보내는 것은 이상할 것 없는 일이다. 하지만 단순히 2골을 넣었기에 보낸 박수는 아니다.

당시 손흥민은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었다. 앞서 4일 에버턴과의 EPL 경기 도중 상대에게 의도 없는 파울을 범했고 그로 인해 고메스가 큰 부상을 입었다. 손흥민도 정신적 충격이 심했는데, 때문에 일각에서는 즈베즈다 원정을 그냥 건너뛰는 것이 나올 것이라는 조언도 적잖았다. 하지만 포체티노 감독은 선발을 택했고 손흥민은 축구로 극복해 냈다.

결과는 좋았으나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었다. 지나치게 의욕이 앞섰다가는 플레이가 꼬일 수 있었고 행여 좋지 않은 결과로 끝나면 악영향으로 겹쳐질 수 있었다. 그 높은 산을 멋지게 넘었다. 그 모습 그대로, 이제 '대표팀 에이스' 손흥민으로 변신한다. 이미 대표팀에 긍정적인 기운을 많이 전파하고 있는 모양새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이 11일 오후 캄프가 차려진 UAE 아부다비의 자이드 크리켓 스타디움에서 현지 첫 훈련을 실시했다.

소속팀 일정상 합류가 늦는 황

희찬(잘츠부르크)과 권창훈(프라이부르크)을 제외한 21명 전원이 모두 나와 일정을 소화했다. 손흥민을 비롯해 정우영(알 사드), 이재성(홀슈타인 킵) 등 주말에 경기를 치르고 합류한 이들은 회복에 집중했고 다른 선수들은 1시간 남짓 워밍업 프로그램 후 미니게임까지 진행했다. 첫날치고는 훈련 강도가 제법이었다.

'회복조'도 게으름 없었다. 통상적으로 경기를 막 뛰고 온 선수들은 컨디션 조절 정도에서 그치는데 이날은 피지컬 트레이너와의 단계 훈련 뒤에도 개별적으로 더 훈련을 진행했다. 그 '자발적 나머지 훈련'에 앞장 선 이가 손흥민이다.

손흥민은 가장 마지막까지 개별 훈련을 진행했고 미니게임을 진행할 때도 터치라인 옆에서 지켜보며 캄프다운 면모를 보여줬다. 오래 훈련한다고 솔선수범한 것은 아니다. 확실히 자세가 다르다는 게 대표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선수단을 이끄는 최영을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은 "선수들 모두 손흥민의 능력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 위치에 있는 선수지만 전혀 거드름을 피우는 법 없다"고 말한 뒤 "손흥민은 대표팀에 들어오면서부터 코칭스태프와 선수들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손흥민이 11일(현지시간) 오후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의 세이크 자예드 크리켓 스타디움에서 훈련을 하고 있다.

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시작한다. 자신부터 겸손하게 성실하게 일정에 임하니 후배들이 더 자발적으로 따르는 것 같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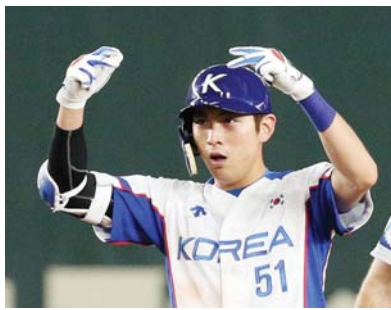
최영일 부회장은 그런 '자세'가 앞서 소개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던 원동력이라는 견해를 덧붙

였다. 최 부회장은 최근 사고와 그것을 극복한 점을 언급하며 "결코 쉬운 일 아니다. 우리들은(선수 출신들은) 그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안다. 어렸을 때부터 남다른 '자세'가 갖춰졌기에 쉽게 쓰러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한 뒤 "단순한 플레이뿐 아니라 그런 마인드까지 대표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력부터 마인드까지 '본보기'가 되는 플레이어. 한국 축구는 지금 꽤 괜찮은 리더와 함께 하고 있다.

'타율·안타·출루율 1위' 이정후, 프리미어12 평정 중



'바람의 손자' 이정후가 프리미어12를 평정 중이다.

이정후는 지난 11일 일본 도쿄 돔에서 열린 2019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 프리미어12 슈퍼라운드 미국과 첫 경기에 3번타자 중견수로 선발 출전해 4타수 3안타 1타점 1득점으로 맹활약했다.

에스타도르의 뜨거운 타격감이 슈퍼라운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날 3안타 맹타로 이정후의 이번 대회 타율은 0.539(13타수 7안타)까지 치솟았다. 안타 7개 중 2루타가 5개로 중장거리형 타자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이정후는 슈퍼라운드 첫 경기를 치른 현재 타율은 물론 안타(7개), 출루율(0.647)까지 3개 부문 1위에 올라 있다. 이번 프리미어12에 출전한 타자 중 단연 눈에 띄는 성적이다. 이제 겨우 프로 3년차 선수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국제대회에서도 주목되지 않는 모습이다.

경기 후 이정후는 "포스트시즌

부터 좋았던 감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좋은 감이 대회 끝날 때까지 갔으면 좋겠다"며 웃으며 말했다.

미국 투수들을 상대한 느낌을 묻는 질문에는 "한국에서 많은 외국인 투수를 상대했는데, 그 투수들과 비슷한 느낌이었다"며 "개인적으로는 KBO리그 투수들이 좀 더 좋았다"고 답했다.

이정후가 이종범 LG 트윈스 코치의 아들이라는 점은 일본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이종범 코치는 과거 일본 프로야구 주니치 드래곤스에서 활약, 일본 내 인지도가 높다. 이제 아들인 이정후의 명성을 조금씩 앞지르려 하고 있다.

뉴스

LA 타임스 "류현진 할인된 금액이면 다저스 재계약도 가능"

"다저스 내부 FA 중 유일하게 붙잡을만 해...몸값 관건"

LA 다저스의 오프시즌 최우선 과제는 자유계약선수(FA) 중 투수 최대어로 꼽히는 게릿 폴 영입과 우타자 보강이다. 이로 인해 류현진(32)과의 계약은 우선 순위에서 밀릴 가능성도 있다.

LA 타임스는 11일(한국시간) "다저스는 워커 불러와 함께 할 또 한 명의 선발투수와 강한 우타자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매체는 다저스가 특급 선발 자원으로 분류되는 폴, 야수 중에서는 앤서니 렌던과 조시 도날드슨 등을 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같은 분위기는 FA가 된 류현진(32)과의 계약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매체는 다저스 내부 FA 5명 중 류현진이 유일하게 붙잡을 만한 선수라고 강조했지만 문제는 몸값이다.

폴은 연간 3000만달러 이상의 대형 계약을 맺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저스가 폴을 붙잡는다면 류현진에게 많은 금액을 투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류현진은 폴, 스트라스버그보다 짧은 계약 기간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류현진은 이들보다는 낮

은 금액으로 3~4년 정도 계약을 맺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LA 타임스는 "류현진은 성공 가능성과 실패 가능성이 모두 존재하는 선수"라며 "폴과 스티븐 스트라스버그를 놓치거나, 많은 돈을 투자하고 싶지 않은 구단들이 류현진에게 관심을 보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류현진은 LA에서 뛰는 것을 즐긴다. 류현진이 약간의 할인된 금액을 제시한다면 다저스 재계약 가능성도 있다"면서도 "류현진은 이번 겨울 다저스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 중 하나다. 류현진 영입 경쟁은 치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명품하는 행복의군민

설림화순 버스투어 2019. 3. 23(토)~11. 24(일) 매주 수, 토, 일요일

코스
 동부권 화순읍(이용대체육관 앞)→화순적벽→임대정원림→연둔숲정미→김삿갓동산→오지호 기념관 및 생가→화순읍
 서부권 화순읍(이용대체육관 앞)→운주사→조광조유배지→고인돌유적지→화순적벽→화순읍

예약
 설림화순 버스투어 홈페이지 <http://tour.hwasun.go.kr>
현지탐승
 이서커뮤니티센터, 미 예약 방문객 현장 선착순(1대)

임대정원림


연둔숲정미


김삿갓동산


오지호 기념관


조광조유배지


고인돌유적지


운주시